

인쇄저널

Printing Journal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슈 인쇄업계의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AI)이 갖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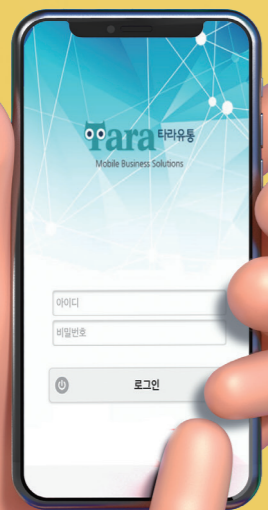
경영정보 고정연장근로(OT) 이렇게 활용하세요

04

2024 | Vol.437



<p>찾은 주문 오류 내가 주문한 제품이 아닌데?</p>	→	<p>언제, 어디서나, 주문 및 취소가능 모바일, PC 접속하여 24시간 주문 가능</p>
<p>늦은 재고 확인 재고조회 요청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p>	→	<p>제지사 재고 실시간 확인 타라유통 재고 + 무림페이퍼, 한솔제지 재고 실시간확인 / 추후 흥원제지 연동 예정</p>
<p>깜깜이 배송 종이가 출발은 했나? 도착은 언제??</p>	→	<p>실시간 배송확인 배송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 (자사 전차량 GPS 부착)</p>



모바일 주문 시스템
차별화 선언
내 손안에 종이세상
T-verse

※T-verse는 타라유통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바일 주문 플랫폼입니다.



04



12



17

발행일	2024년 4월 10일
등록일	1990년 3월 23일
발행인 겸 편집인	김윤중
편집위원장	서동숙
편집위원	강혜성, 류윤희, 목영만, 채연화
실무	사업홍보팀(오혜경, 남영복) ☎ 02-333-8631(내선 239)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www.spi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쌍림동 146-1)
디자인 편집	카오넷근아 / ☎ 02-2278-1577
인쇄	(주)투데이아트 / ☎ 02-2265-6119

today art
※ 인쇄제널의 인쇄 및 용지 제공은 (주)투데이아트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서울인쇄조합이 운영기관인 서울인쇄센터가 최신에 디지털인쇄기를 도입했습니다. 기본 4색 외에도 골드, 실버, 핑크 별색이 가능해 무궁무진한 색채의 향연을 펼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서울시 인쇄인이라면 누구든지 샘플제작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서울인쇄센터'를 검색해보세요.

Contents

2024 | Vol.437 **04**

04	이슈	DX, AI 넘어선 새로운 지속가능성
08	글로벌 리포트	드루파 미래 전망 리포트
10	드루파 2024	디지털과 지속가능성 통한 인쇄산업의 미래
12	전시회	송파책박물관 기획전시
14	업계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력 활용방안 간담회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산악회, 2024년 사산제 개최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정기총회 개최 중구출마 국회의원 후보 간담회 개최 한국후지필름BI, 특수 토너와 팬톤의 만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용인회, 문성원색 김재민 회장 상수연 개최 더 성도 창립 50주년 맞아 김인호 동양상사지기인쇄 모범납세자 표창장 수상 세계 최대 포장산업전, 인터팩 2026 참가사 등록 시작 조합원사 변동
20	경영정보 1	고정연장근로(OT) 이렇게 활용하세요
22	경영정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청구(세금환급) 노무정비 서비스(최신 노동법 반영) 조합 가입 안내
24	알림	서울인쇄센터 이용안내

DX, AI 넘어선 새로운 지속가능성

인쇄업계의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AI)이 갖는 의미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하 DX),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하 AI)으로 들쭉이고 있다. 실제로 DX와 AI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이미 기획서나 자료, 기사작성, 이미지 생성 등은 AI를 통해 제작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휴대폰이나 웹사이트 검색엔진도 AI로 대체하고 있다.

우리 인쇄업계도 일각에선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인쇄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말하는 DX, AI에 대해 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며 그 수준은 정점에 올라와 있다. 다만 이것이 DX인지, AI였는지 몰랐을 뿐이다.

이처럼 인쇄산업이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4차산업혁명(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에 선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DX가, AI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이란 무엇인가?

AI는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지능적인 작업을 모방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패턴을 인식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말로는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AI는 먼 미래 얘기가 아니며 이미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깊숙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 실생활에서의 AI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 **음성 비서 및 개인 비서:** 음성 인식 기술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개인 비서 서비스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Siri, 아마존의 Alexa, 구글 어시스턴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음성 비서들은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하고 정보를 검색하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 **온라인 검색 및 추천 시스템:** 검색엔진과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검색 결과 및 추천을 제공한다. 구글 검색엔진은 검색어 및 사용자의 이전 검색 기록을 분석하여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며,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은 사용자의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제품 추천을 제공한다.

- **의료 진단 및 치료:** 의료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된다. 의료 이미지 분석을 통해 X-ray, CT, MRI 등의 영상을 분석하고 의사들에게 진단 지원을 제공하며, 알고리즘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의 발생 및 진행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한다.
- **자율 주행 자동차:** 자율 주행 자동차는 센서, 라이다(LiDAR), 카메라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이를 분석하여 자동차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AI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운전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처리한다.
- **금융 및 보안:** 금융 기관은 AI를 사용하여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부정활동을 탐지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보안 기업은 AI를 사용하여 악성 코드 및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인쇄업계의 AI 적용

타 산업은 최근 들어 AI 붐을 타고 있지만, 인쇄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AI 기술이 적용되어 왔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관리, 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AI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자동화된 이미지 검사:** AI 기술을 활용하여 인쇄된 제품의 품질을 자동으로 검사해준다. 예를 들어, 카메라 시스템과 이미지 분석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잉크 얼룩, 누락된 인쇄, 오염, 정렬 문제 등을 감지하고 이상이 발견된 제품을 식별할 수 있다. 이는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고 불량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생산 스케줄링 최적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라인의 스케줄을 최적화하고 있다. 생산량, 재고 상태, 공정 시간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맞춤형 디자인 및 개인화:** AI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디자인 및 제품을 생성하고 있다. 고객의 선호도 및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제품을 제공하거나, 디자



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재료 및 자원 관리:** AI 기술을 활용하여 재료 및 자원 사용을 최적화해준다. 생산량 예측, 재고 관리, 생산 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원자재 및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 **고객 서비스 및 의사 결정 지원:**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고객의 요청 및 피드백을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생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 활용한다.
- 위와 열거한 것처럼 인쇄산업에서의 AI 기술은 이미 JDF, CIP3, CIP4 기반 위에 인쇄제조사들이 선보이고 있는 워크플로우 솔루션 안에서, 인쇄사의 생산 및 판매 플랫폼 안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AI의 적용은 생산성과 품질, 판매량 증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DX)이란 무엇인가?

DX도 AI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실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통적인 브릭 앤 모르타르(Brick & Mortar/벽돌과 모래반죽으로 만들어진 가게/오프라인) 상점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은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인 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며, 디지털 마케팅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공지능과 자동화:** 다양한 산업에서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로봇을 사용하여 생산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챗봇을 활용하여 고객 문의를 처리하는 등의 예가 있다.
-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기업은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활용한다. 예를 들어, 소매업체는 고객의 구매 이력 및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거나,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 예측 및 치료에 활용한다.
-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은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기존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한다. 이는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 **스마트 시티:** 도시 및 지역 관리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 공공 안전 및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쇄업계의 DX 적용

이처럼 DX란 일반적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쇄업계는 이미 DX를 통해 많은 혁신을 가져왔고 실제로 진행해오고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인쇄 기술 도입:** 디지털 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고해상도 프린팅과 빠른 프린팅 속도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기존의 오프셋 인쇄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프린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자동화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 도입:** 자동화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도입으로 생산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예를 들어, 워크플로우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업 흐름을 자동화하고 관리할 수 있다.
- **포장 및 라벨링의 디지털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포장 및 라벨링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사용자 정의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라벨 프린팅은 작은 수량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주고, 다양한 디자인 및 요구 사항에 대응할 수 있다.
- **개인화 및 맞춤형 인쇄:** 디지털 기술은 개인화 및 맞춤형 인쇄를 가능하게 한다. 고객은 자신의 요구에 맞게 제품을 개인화할 수 있고, 이는 주문량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및 웹 플랫폼:**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및 온라인 웹 플랫폼은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프린트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고객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쇄 업체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취향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발행했던 트랜스프로모션이나 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

을 활용해 굳즈를 온라인상에서 미리 시연하고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은 이미 오래전 소개되었고 상용화된 바 있다.

인쇄산업이 DX, AI를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

이처럼 우리 자신은 몰랐지만, 인쇄산업이 그 어느 산업보다 DX와 AI가 보편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 때문이다.

- 첫째, 인쇄는 포괄적인 산업이다. 인쇄산업은 다른 산업과 교차되는 특성이 있다. 인쇄는 출판, 광고, 포장, 의류,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이다. 이는 인쇄산업이 여러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고객의 요구와 물량, 그리고 그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는 인쇄의 전체공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 뿐만 아니라 물류까지 아우르는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자연스럽게 구축하게 된 것이다.
- 둘째, 급속한 기술적 발전 이룬 인쇄산업이다. 최근 몇십 년간 인쇄 기술은 가히 혁명에 가까운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도 이미 인쇄산업은 우주항공 다음으로 정밀한 장치산업으로 불렸다. 국내 매킨토시를 처음 도입해 활성화시킨 분야가 인쇄였고 정점에 오른 오프셋 인쇄 기술에 이어 디지털 인쇄 기술의 발전으로 소량의 인쇄물을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제4차산업혁명을 이룩한 바 있다.
- 셋째, 고객 중심의 제작산업이다.

인쇄산업은 고객 중심의 제작을 중시한다. 고객은 자신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디자인 및 인쇄물을 원하며, 이는 인쇄산업에서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미 소량 다품종을 넘어 1장도 인쇄해주는 개인맞춤형 인쇄가 보편화하였다. 넷째, 재료 다양성과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 인쇄산업은 다양한 종류의 재료를 사용한다. 종이와 플라스틱은 인쇄에 가장 흔히 사용되



는 재료이지만, 최근에는 금속, 유리, 직물 등 다양한 재료에도 인쇄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쇄산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재료 사용과 재활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인쇄 기술과 공정이 개발되고 채택되고 있다.

인쇄업계는 이미 DX, AI의 최고 정점 수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인쇄산업은 DX와 AI는 물론이고 이미 4차산업혁명을 선점해왔다. 인쇄업계에서의 AI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며 전통적인 인쇄 기술에 혁신을 가져왔다. 과거에는 인쇄 공정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인간의 실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AI의 도입으로 인쇄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기존에는 인간이 하는 일들을 AI가 대체하거나 보조하여 인쇄 공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및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인쇄물의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인쇄물을 제공하고 오류로 인한 재작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AI는 인쇄 업체의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지금의 인쇄산업에서 AI 기술은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AI 기술이 더욱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일례로 고객의 선호도 및 행동을 분석하여 개인화된 디자인 및 콘텐츠를 생성하고 센서와 연결된 AI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생산 라인을 모니터링하고 예측 분석을 수행하여 장애 및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다. 후가공에서도 AI 로봇이 후가공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어, 인쇄물의 가공 및 마무리 작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여기에 환경친화적 생산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AI는 재료 및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여 인쇄물 생산의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인쇄산업의 진정한 화두는 디지털화에 이은 지속가능성

오는 5월 개최하는 독일 드루파 전시의 주제는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이다. 이 중에 디지털화는 우리에게 전혀 생소하지 않은 단어이다. 이미 20년도 넘게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속가능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인쇄업을 꾸준히 오래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따라서 우리가 인쇄산업도 이제는 사회적 요구사항, 지속가능성을 중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 그 래왔듯이 우리 인쇄산업은 앞으로 언급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본인은 모르지만 마치 디지털화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체화된 것처럼 시장원리에 의해 잘 적응해나갈 뿐만 아니라 더욱 꽃피울 것이기 때문이다. 인쇄산업에서 지속가능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다음 사항만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드루파 2024 이후 변화할 인쇄산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 보호:** 인쇄산업은 종이, 잉크, 에너지 등 자원을 사용하고 폐기물을 생성한다. 이러한 활동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인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원 소비를 줄이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 **자원 보존:** 종이와 잉크는 인쇄산업에서 주요 자원이다.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하면 자원 소비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자연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경제적 이점:** 지속가능한 인쇄 기술과 재료의 도입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친환경적인 재료의 사용은 종이와 잉크의 소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은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고객 요구 대응:** 현대 소비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한다. 인쇄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제품과 생산 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사회적 책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인쇄산업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 **법규 준수 및 규제 준수:**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법규와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인쇄산업은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인쇄산업에서의 지속가능성은 환경 보호, 자원 보존, 경제적 이점, 고객 요구 대응,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인쇄산업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방향이 그것이며 이를 통해 인쇄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기사는 ChatGPT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드루파 미래 전망 리포트

인쇄산업 지각변동, 근원 파악하고 대비하라

드루파 전시회 주최사인 메쎌 뒤셀도르프가 영국의 Printfuture와 스위스의 wissler&partner를 통해 인쇄산업의 미래 전망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600명이 넘는 인쇄업체와 협력업체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우리 인쇄업계도 전 세계 인쇄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통찰력으로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편집자주)

1. 아날로그와 디지털 제작의 변화하는 역학관계

대부분의 인쇄업체는 디지털과 함께 기존 인쇄방식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면 경쟁이 아닌 보완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인쇄업체는 더 효율적인 기존 인쇄와 후가공을 모색할 것이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인쇄업체와 협력업체가 49% 대 28%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기존 인쇄 마감장비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엔드투엔드 자동화도 인쇄업체는 38%인 반면 협력업체는 22%에 불과했다.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유일한 주제는 핵심생산방법으로서의 디지털 인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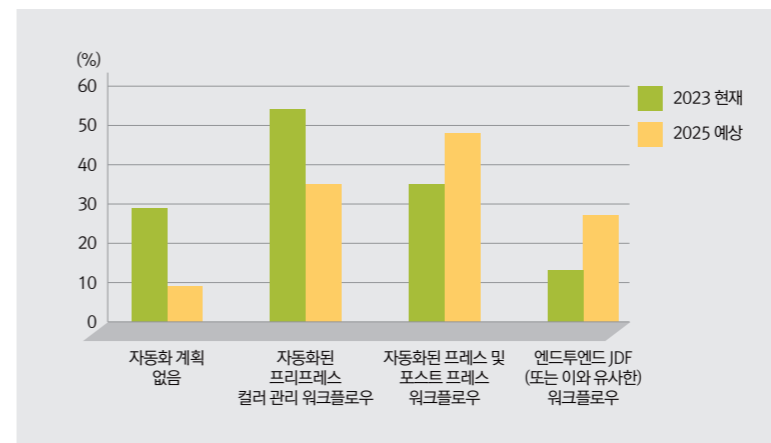
중요성(각각 31%)이었다. 디지털 인쇄는 매엽 토너 기술이 여전히 대량 인쇄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잉크젯에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집중하고 있다. 기존 방식과 디지털 인쇄 사이의 경제적 손익분기점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인쇄의 단기간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결과로 대체되고 있다.

2. 워크플로우 및 자동화

인쇄회사는 디지털인쇄에 대한 투자가 다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미래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동화가 없는 상태 → 자동화된 프리프레스 컬러 관리 워크플로우 → 다중화된 프레스 및 포스트프레스 워크플로우 → 마지막으로 엔드 투 엔드 JDF(또는 이와 유사한) 워크플로우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현재 각 기업이 이 스펙트럼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물어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29%는 위의 단계 중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았고, 54%는 프리프레스 자동화를 도입했다. 35%는 프레스 및 포스트프레스 자동화를, 13%는 엔드 투 엔드 JDF 워크플로우

를 사용 중이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위의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아시아 인쇄업체는 46%에 달했으나, 유럽의 인쇄업체는 24%에 그쳤다. 눈에 띄는 점은 <그림 2>에서 이러한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야심찬 답변이다.

지금까지 많은 인쇄업체가 개별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려는 용감한 시도를 해왔지만, 단일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더 큰 과제를 해결한 곳은 거의 없다. 포괄적인 자동화를 구현하는데 따른 혼란은 여전히 큰 걸림돌로 남아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협력업체의 통합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고객 및 협



<그림 2> 인쇄업체의 자동화 도입 의지

력업체와의 시스템 통합은 불필요한 노동력과 오류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 결과, 데이터 보안과 인증에 대한 고객과 규제기관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은 고객 또는 고객의 고객을 확보하고자 유지하는데 비용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은 이미 인쇄업계에서 기계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가령,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유지보수 일정을 관리하거나 재료를 더 잘 활용하고 낭비를 줄이며,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인쇄업체는 AI 생성 이미지/텍스트가 포함된 파일에 대비하고, 챗봇을 통한 실시간 고객 소통방식을 통한 자동화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측면은 공급망의 운영효율성과 제조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다. 우리 모두 생성형 AI의 힘, 범위,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단계에 있다.

3. 인쇄물 장식 및 후가공

인쇄장식 및 후가공에 대한 투자는 인쇄물 제작만큼이나 중요하다. 단기 및 온디맨드 생산으로의 전환은 마감부서의 역동성과 요구사항을 변화시켰다. 특히 인라인 마감과 디지털 인쇄 장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관련된 기회와 비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주제를 우선순위로 선택한 포장인쇄업체의 50%는 가치별 매출의 25% 이상이 인쇄장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 반면, 상업용 인쇄업체는 28%에 그쳤다.

4. Web to Print

보고서는 웹 투 프린트 정착의 느린 성장을 보여준다. 한 해설자는 이를 인쇄업체가 직접 투자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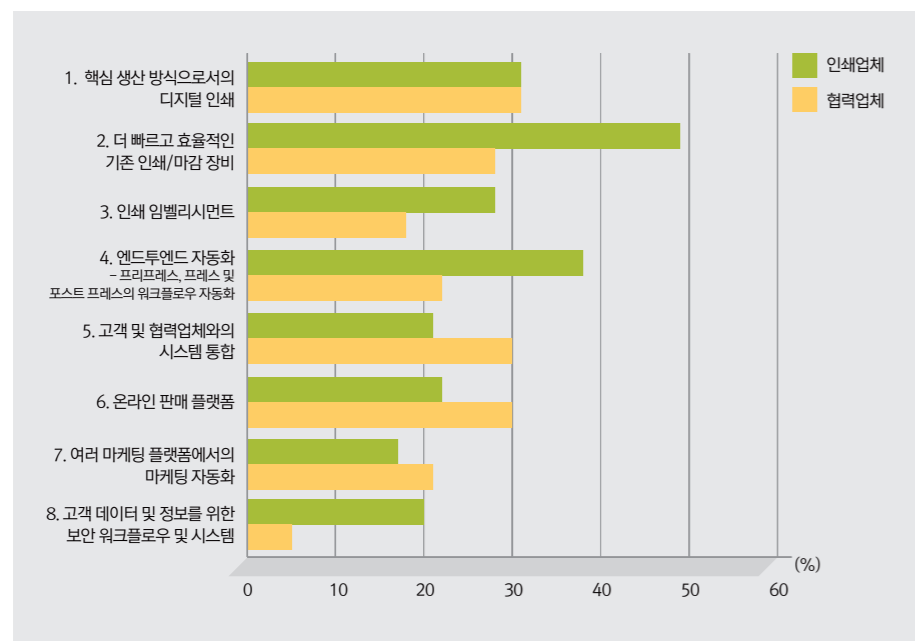
웹 투 프린트 플랫폼을 통해 작업을 아웃소싱한 효과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볼륨은 증가하지만 설치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웹 투 프린트가 인쇄비즈니스의 자동화 속도를 가속화하여 노동집약적인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2014년에는 전 세계 패널의 25%가 웹 투 프린트를 설치했다고 답했다. 2023년에도 이 수치는 여전히 25%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 인프라 및 기타 이유로 이커머스를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럽에서도 2014년 27%에서 2023년 28%로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온라인판매가 우선순위라고 답한 응답자 중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스템을 도입한 지 1년 미만은 42%, 3년 이상은 30%에 불과했다. 이커머스 시스템 설치/업그레이드에 대한 관심은 해당 기업이 속한 시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디지털 패키징 및 라벨

패키징 시장은 디지털화 시대를 통해 번영을 누렸으며 그 결과 다른 인쇄분야들이 주목하는 시장임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대량생산에서의 기존 인쇄방식이 계속 변창하고 있지만, 공급망이 해체되고 복잡해지고 SKU(재고관리단위) 수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생산에 대한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6. ESG와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은 새로운 관심사는 아니다. 하지만 어떤 인쇄업체나 공급업체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주제가 됐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하는 조치는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주며,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쇄업체의 55%는 구체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수치는 전 세계와 모든 시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업계 전체가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ESG는 명확한 정의가 없고 입법자들이 그 의미를 명문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서 소규모 공급업체로 향하는 낙수효과가 나타난다. 현재로서는 인쇄업체와 공급업체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정책과 프로세스를 공식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해설자들은 조언한다.



<그림 1> 인쇄분야 투자 개발 우선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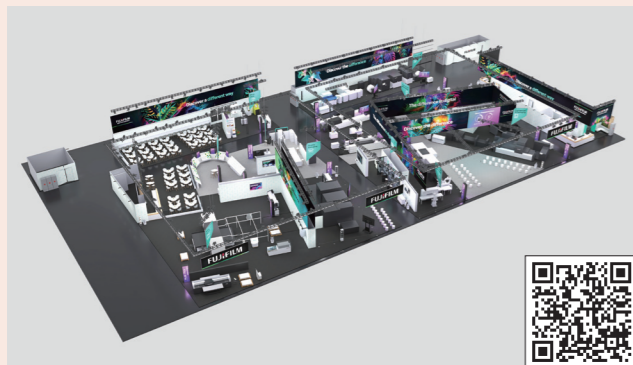
디지털과 지속가능성 통한 인쇄산업의 미래 한차원 높은 잉크젯 솔루션과 고도의 워크플로우 대거 출시 기대

전시회 때마다 인쇄기술 및 패키징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해 인쇄업계의 새로운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드루파 2024 전시회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8년 만에 열리게 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변화된 사회현상을 반영한 새로운 기술과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시사들은 이미 가상체험 사이트를 개설해 미리 전시부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드루파 현장에서도 몰입형 체험 부스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지각변동을 반영하고 있다. 이미 몇몇 업체는 자체 드루파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온라인 홍보물을 이용하거나 보도 자료 배포 등을 통해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이에 소개한다.

후지필름(Hall 8b/A02-A02-6)

잉크 및 토너기술로 인쇄경험을 재정 의하고 다양한 솔루션 모색



독점기술인 AQUAFUZE 잉크젯 잉크기술은 수성 잉크와 UV 경화형 잉크의 배합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UV 경화형 수성 잉크로 실내 응용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B2XL(750×662mm)크기를 지원하는 건식 토너 디지털 프레스인 레보리아 GC12500도 처음 공개하며 연속 공급방식의 Jet Press 1160CFG도 이번 전시에 데뷔하는 또 다른 제품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다이렉트 메일의 그래픽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고속 드롭 온디맨드 인쇄기술을 제공하는 새롭고 강력한 프린트바 시스템 제품군을 선보일 예정이다.

GIP(Hall 5/A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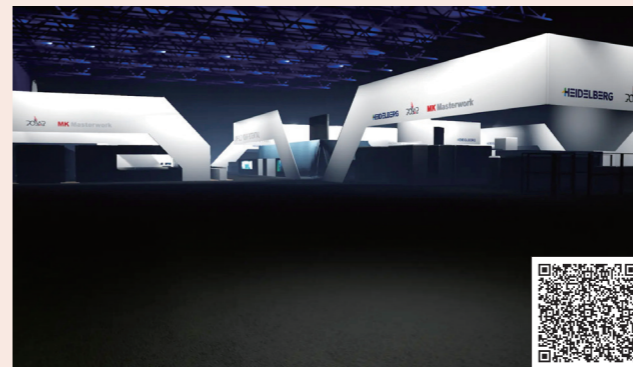
출판, 교육, 상업인쇄 적용 가능한 POD 솔루션 처음 공개
GIP는 디지털 잉크젯 보드 시스템과 잉크젯 프린팅 엔진 시스



템의 개발 및 제조를 통해 산업용, 잉크젯 프린팅의 품질을 한 차원 높게 구현하고 있다. 이번 드루파에서는 라벨 프린팅 시스템과 함께 POD 솔루션을 처음으로 소개한다. 특히 520HD 디지털 웹프레스는 분당 150m, 1200×1200dpi 해상도로 아그파의 아산티 워크플로우와 완전히 통합되어 높은 신뢰성과 간편한 작업을 보장한다. 속건성 수성 잉크 사용으로 건조시간은 물론 잉크 사용량 및 전력 소비를 절감하며 각 프린트헤드 전용 드라이버 보드 적용으로 인쇄 효율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하이델베르크(Hall 1/C30-1-C30-5)

체험센터에서 지속가능하면서도 경제적인 운영 솔루션 제공
이미 웹사이트를 통해 드루파 전시현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하이델베르크는 패키지 생산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한 전체 생산 라인에 대해 고도로 자동화된 패키지 워크플로우를 보여줌으로써 비용 압박과 변화하는 조건에서 경쟁력을 높이



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프셋 인쇄의 대안으로 대량의 패키지 인쇄에서 진정한 변혁을 일으킬 인텔리매지를 장착한 새로운 보드마스터를 선보인다. 상업 및 출판용 인쇄기는 Prinect와 함께 통합된 엔드 투 엔드 워크플로우를 기대할 수 있다.

코닥 (Hall 5/A02-2)

디지털 및 전통 인쇄의 스마트 통합



초당 2.54미터의 생산 속도로 다양한 재질에서 다양한 고품질 인쇄를 하는 PROSPER ULTRA 520 프레스가 코닥 900 Print Manager와 코닥 PRINERGY 워크플로우 플랫폼에 통합되어 다목적 코닥 제조 선공정 및 후공정 솔루션과 함께 선보인다. 또한, 새로운 광폭 코닥 PROSPER 임프린팅 솔루션이 첫선을 보이게 된다. 이 잉크젯 혁신은 오프셋, 플렉소, 그라비아 등 프레스에 통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맞춤 포장재, 보안, 상업 인쇄 등의 고도로 탄력적인 고품질 디지털 임프린팅용 포스트프레스 및 변환 시스템에도 통합 가능하다.

리코(Hall 8a/A21-1-A21-2)

몰입형 부스 체험 통해 미래 성장 가속화 위한 솔루션 소개
일본어로 변혁적 혁신을 뜻하는 ‘헨카쿠’를 테마로 한 이번 전시회에서 방문객들은 리코 솔루션이 자동화 및 효율성을 향상



함으로써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총소유비용을 절감하는 새로운 방법의 시각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고품질의 생생하고 다재다능한 상품의 생산을 라이브로 시연하는 새로운 여러 장비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지난 3월 14일에는 국내 인쇄업체 고객을 초청해 드루파 2024에서 소개될 신제품과 리코의 전략 등에 대해 사전에 소개하는 프리 드루파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RMGT(Hall 16/E11)

인쇄공정 네트워크 연결 통한 최적화 위한 스마트팩토리 제안



RMGT는 상업용 및 포장용 인쇄 시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 중 RMGT 970PF-8+LED 컨버터를 양면기는 8-UP+ 크기로 최대 8색의 직선 구성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최대 10가지 색상의 양면기 및 프레스는 인라인 코팅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 밖에도 RMGT는 1060LX-6+CC를 전시하여 상업용 인쇄 및 포장용 인쇄기 시장에서의 혁신을 보여줄 예정이다. 상업용 인쇄 및 포장 시장을 위한 RMGT의 기술은 고급 자동화와 노동력 절약을 강조하는 ASAP(Automated Smart Assist Printing)를 제공, 이를 통해 보급형 작업자의 작업 및 상업용 인쇄의 작동률을 향상시킨다.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
Printing, Embraces the Memory of the Times

2024. 1. 31. - 8. 31.

송파책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Songpa



송파책박물관 기획전시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8월 31일까지 송파책박물관에서 한국 인쇄사를 다룬 특별 기획전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인쇄의 발전사를 고려, 조선, 근대, 한국 전쟁기, 현대까지 총 5부에 걸쳐 시대순으로 선보이며, 시대별 책 인쇄물, 인쇄 도구 등 귀중한 자료 140여 점을 공개한다. 생생한 인쇄과정을 담은 영상과 함께 인쇄 역사 전체를 3D 일러스트로 조명한 특별영상도 상영해 이해를 돕는다.

1부 ●●● 세상을 뒤흔든 인쇄

먼저 1부 ‘세상을 뒤흔든 인쇄’에서는 목판과 금속활자 인쇄를 소개한다. 특히 전시품 중 하나인 ‘직지심체요절’ 복원본은 이번 전시를 위해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특별 대여해 와 눈여겨볼 만하다. 1377년 제작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으로, 원본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

2부 ●●● 인쇄, 지식의 보급

2부 ‘인쇄, 지식의 보급’에서는 조선의 통치이념인 유교 전파를 목표로 태종 이후부터 주조한 금속활자로 간행한 유교 경전과 의례서, 인쇄도구 등을 선보인다. 조선 후기 ‘책 소장에 대한 개인의 열망’이 커지면서 발간된 다양한 민간서적들은 변화된 사회상을 짐작하게 해 흥미롭다.

3부 ●●● 새로운 세상을 향한 목소리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의 인쇄사가 담긴 3부 ‘새로운 세상을 향

한 목소리’에서는 신기술 도입으로 생긴 변화를 소개한다. 1883년 한국 최초 근대적 신문 <한성순보> 첫 발간부터 1980년대까지 1백여 년간 대한민국 인쇄술의 한 축을 도맡았던 ‘납 활자’와 ‘납 활자로 인쇄한 책’을 만나볼 수 있다. 애국 계몽을 위해 간행했던 책을 통해서도 일제 치하 출판 인쇄인들의 열정까지 확인할 수 있다.

4부 ●●● 위기를 딛고 나아가다

4부 ‘위기를 딛고 나아가다’는 한국전쟁기를 다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과서 출판과 인쇄 재개를 위해 힘쓴 결과, 1954년 인쇄공장을 건립하고 국정 교과서를 인쇄한 민족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5부 ●●● 인쇄문화를 꽃피우다

마지막은 현대의 컬러 인쇄를 소개하는 5부 ‘인쇄문화를 꽃피우다’이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고품질, 고효율의 인쇄방식인 ‘오프셋 인쇄’와 가제본 방법까지 살펴볼 수 있다. 눈부신 기술의 발전

에도 여전히 책 한 권이 완성되기까지 드는 공력을 실감하고 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기획되었다.

체험코너도 다채롭게 진행

전시회에 이어 아름다운 인쇄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체험 코너도 있다. 조선시대 책 표지 디자인을 위해 목판에 문양을 조각해 은은하게 찍어



내는 ‘능화판 인쇄’와 시나 편지를 적는 종이에 그림을 인쇄하는 ‘시전지 만들기’, 시대별 인쇄물 채색 체험까지 참여기회가 다채롭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 입장료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책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찬란한 한국사의 배경에는 언제나 책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었다. 인쇄술 발달에 따라 함께 발전한 한국인의 삶을 반추하며, 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 가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

- 장소 : 송파책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 주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37길 77
- 전시기간 : 2024. 8. 31.까지
- 관람시간 :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 관람요금 : 무료
- www.bookmuseum.go.kr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력 활용방안 간담회

접근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필요



서울인쇄조합(이사장 김윤중)은 지난 3월 21일(목) 오후 2시 조합 이사장실에서 ‘인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공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폴리텍대학 정명식 교수와 강원대학교 이민희 교수가 참석, 외국인력 유치와 국내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견해를 나누는 자리였다. 먼저 이민희 교수는 제안했던 다양한 방안 중 아직 시도되지 않았지만, 해외현지에서 경력자나 전공자를 모집 후 해당 나라에서 한국어교육과 인쇄관련 자격증을 취득(12~16주)한 다음 한국에 E-7이나 E-9 비자로 입국해 인쇄관련 심화교육(1~2주)을 받은 후 업체 협약을 통해 E-7 비자로 변경해 인쇄업계 취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해외현지에서 인력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 이탈

자 방지 및 매칭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명식 교수는 접근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인쇄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크게 E-9 비자를 발급 받아서 비숙련 인력을 수급하는 방법과 E-7 비자를 발급 받아서 숙련 인력 수급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2개 비자의 차이점은 E-9 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며 4년 10개월동안 한국에 근무하고 본국으로 귀국해서 재차 입국해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이며 E-7 비자는 국내대학에 진학하여 졸업시즌에 기업과 협약을 해서 근무하게 되며 국내 체류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제도라고 했다. 따라서 인쇄산업의 외국인력공급을 위해서는 비숙련 비자 또는 숙련비자 두 트랙으로 진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존에 운영하는 인쇄대학 학과를 활용하여 E-7 비자로 입국해서 활용하는 방법, 또는 E-7 비자로 입국하는 신입학 학생들을 졸업 시즌에 인쇄업체로 취업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이 확정되었다. 신청은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은 오는 5월 3일까지이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 내국인 고용노력 7일이 필요하다.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1666-5916)으로 하면 된다.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협동조합 육성계획 공유·사업 발굴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회장 박종석)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서울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2024년 서울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선정계획을 공유하고, 성과 제고를 위해 혁신성 있고 지원효과가 큰 사업들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40여 명의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공동사업 발굴과 협업사업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총 12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협업, 인력채용 및 역량강화에 8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산악회, 2024년 시산제 개최

인쇄업계발전과 산행간 무사안전 기원

서울인쇄조합의 등산모임인 서울산악회(회장 김상호)는 지난 3월 10일(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왕방산에서 업계발전과 산행 간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열었다. 이날 산행에는 김윤중 이사장 등 서울인쇄조합 임직원과 서울산악회 전현직 임원 및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7시 50분 충무로 대한극장 앞에서 출발한 서울산악회는 왕방산에 도착하여 가벼운 산행을 마치고 산신에게 한 해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올렸다. 서울산악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상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1년 살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 시산제를 마련하는 만큼 앞으로도 성심을 담아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21년을 맞이하는 서울인쇄조합의 등산모임인 서울산악회



는 산행을 통해 인쇄인들의 화합과 건강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참가문의: 회장 김상호(010-3772-2126) 총무 김대중(010-3287-1306)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정기총회 개최

제19회 대한민국그래픽산업대상 시상식 함께 열려



대한그래픽기술협회(회장 이영수)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1시 호 텔국도에서 제19회 대한민국그래픽산업대상 시상식을 가진데 이어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영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장인정신을 바탕으로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그래픽기술 개발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술협회는 매년 우수한 인쇄인을 발굴하여 산업대상 시상식과 그래픽 컨퍼런

스 등을 통해 대한민국 그래픽산업 및 기술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제19회 대한민국그래픽산업대상 수상자 명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팩컴코리아(주) 김경수 대표이사 ●(주)동양인크 이병욱 상무이사 ●(주)달리 최동희 이사
협회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솔라고PMS(주) 안승희 이사 ●동아출판(주) 김현중 기자 ●한국하이텔베르그(주) 김상숙 부장 ●(주)더씨엠와이 서병찬 기자 ●(주)더성도 이창삼 팀장 ●(주)한국이엔엑스 신승철 팀장 ●(주)대원스마트팩 인쇄재 팀장 ●인쇄산업신문 류형준 기자

중구출마 국회의원 후보 간담회 개최

정당별 후보 초청, 중구지역 인쇄산업 현안 나눠



서울인쇄조합은 중구 출마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 간담회를 지난 3월 21일과 27일 각각 서울인쇄센터 1층에서 개최했다. 3월 21일 간담회는 국민의힘 이해훈 후보를, 27일 간담회에는 박성훈 후보를 초청해 중구지역 인쇄산업의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각 정당 후보를 통해 대처방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은 인쇄업계 현안보고와 함께 세



운지구 재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인쇄인 생존권 대책마련,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 개선, 공공기관 인쇄물적정가격 산정 제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두 후보 역시 중구지역 인쇄산업의 현안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후지필름BI 특수 토너와 팬톤의 만남

레보리아 디지털 인쇄기로 올해의 컬러, 피치 퍼즈 색상 구현



한국후지필름BI가 컬러 디지털 인쇄기 레보리아 프레스 PC1120을 활용한 올해의 팬톤 컬러 '피치 퍼즈' 색상 애플리케이션 5종을 공개했다. 표준 색채 언어로 사용되는 팬톤 컬러는 미국의 글로벌 색채 연구소 팬톤이 규정한 기준 색표집이다. 그 중에서도 올해의 컬러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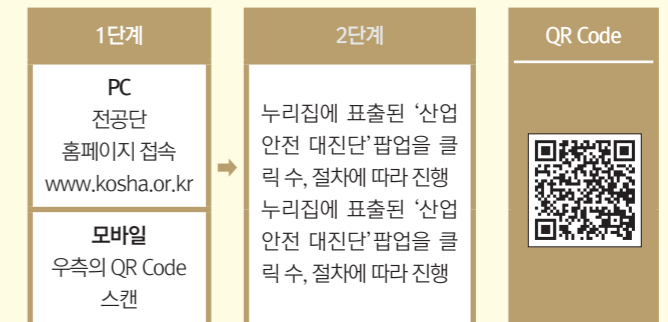
정된 '피치 퍼즈'는 특유의 부드럽고 오묘한 색감으로 시각 예술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용지 등 미디어에 따라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해 토너 방식의 디지털 인쇄로는 구현하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인쇄 시 컬러 값을 확인하며 조정하는 여러 번의 사전 테스트가 요구된다. 한국후지필름BI가 공개한 '피치 퍼즈' 색상 애플리케이션은 레보리아 프레스 PC1120의 우수한 컬러 구현력을 입증하고, 디지털 인쇄 방식을 통한 다양한 상품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수 토너 중 하나인 핑크 스페셜 토너에 기본 CMYK 컬러를 가미해 '피치 퍼즈' 색상을 표현했으며, ▲포스터 2종 ▲리플릿 1종 ▲패키지 2종으로 구성했다. 한국후지필름BI의 '레보리아 프레스 PC1120'은 △고해상도 출력 품질 △확장된 용지 수용성 △다양한 후가공 옵션을 바탕으로 한 단계 진화된 디지털 프린팅 기술을 선보이는 제품이다. 골드·실버·핑크 등 특수 토너 중 2색을 추가할 수 있는 '원패스(One-Pass) 6컬러 프린트 엔진'을 탑재해 기본 CMYK 컬러 외 풍부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자가진단하고 안전수준 개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으로 전국 5~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온오프라인으로 4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중소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온라인 : PC·모바일로 접속하며, 접속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하세요.



오프라인 :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지원문의** : 1544-1133

용인회, 문성원색 김재민 회장 상수연(上壽宴) 개최

1세대 선배 인쇄인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해



용인회(회장 고성체)가 지난 3월 19일 문성원색 김재민 회장의 상수연(上壽宴)을 개최했다. 이날 상수연(上壽宴)이 마련된 식당 벽면에는 '김재민 회장님, 100세 강건함을 축하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으며, 용인회에서는 고성체 회장과 박성구 총무, 회원들이 함께 마련한 꽃다발과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 서울인쇄조합에서는 책자인쇄부 전준호 간사장이 참석해서 100세를 맞은 김재민 회장을 축하했으며,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

지 못한 김윤중 이사장은 별도로 선배 인쇄인에 대한 축하와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고성체 회장은 "100세를 맞으신 김재민 회장님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후배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인쇄연구소 고수근 이사장은 "1세대 인쇄인으로 50여년 동안 힘찬 모습으로 건강하게 활동하신 김재민 회장님은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재민 회장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인쇄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업계 발전을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925년 출생, 올해 100세를 맞은 김재민 회장은, 1961년 (주)새한 인쇄공사에 관리직으로 입사하면서 인쇄인으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계양인쇄사 대표이사를 거쳐 1971년 문성원색인쇄사를 설립, 2007년 83세에 현업에서 은퇴할 때까지 50여 년간 대한민국 1세대 인쇄인으로 국내 인쇄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

〈제공 : 월간 인쇄계〉

더 성도, 창립 50주년 맞아 고객 향한 최고가치 실천하는 기업으로 발전



THE SUNGDO
Graphic Business Platform

주식회사 더 성도(대표이사 김상래)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더 성도는 1974년 창립, 후지필름 그래픽 아트부문의 한국총판 대리점으로 출발하여

지난 50년간 후지필름의 탁월한 기술과 서비스역량을 전수받아 한국 인쇄산업이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CTP(Computer To Plate) 및 무현상판재 등 친환경 솔루션의 선도적 도입과 디지털 인쇄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인쇄산업의 중흥을 감당하고 있다.

더 성도 김상래 대표이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올바른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인쇄산업과 한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임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전진해왔다”고 했다.

특히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성도(星都)를 영속하게 한 핵심 가치는 첫째, 정직과 윤리의 가치, 둘째, 신뢰와 상호존중의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의 가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50년의 축복을 맞이하게 된 성도가 있게 한 것은 고객들과 많은 관계사의 관심과 성원 덕택이었으며 이에 보답하고자 성도의 핵심가치를 계승하여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을 통한 새로운 혁명기에 선도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성도는 1974년 성도상사 설립과 함께 후지필름의 산업 및 그래픽아트 부분 한국 총 책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1984년에는 국내 최초 단색 스캐너를 공급했으며 1996년에는 경기도 파주 종합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적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1999년 성도필름코퍼레이션(주)로, 2002년에는 (주)성도GL로 회사명을 변경했으며, 2021년 인쇄산업의 창조적 도약에 더욱 공헌하고자 ‘더 성도’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태어났다.

김인호 동양상사지기인쇄 대표 모범납세자 표창장 수상

중구청 인재육성장학회 이사 및 기부 봉사로 지역 발전 이바지



동양상사지기인쇄의 김인호 대표이사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지난 3월 4일 중부세무서 6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5명과 함께 초청되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 권순재 중부세무서 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 수요에 기여해 주신 대표님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진정한 영웅”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

으로도 공정한 세정으로 여러분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김인호 대표는 수상소감에서 “이번에 모범납세자로 선정, 표창장을 받게 되어 깊은 영광과 감사를 느낀다”며 “이는 단순히 저 자신의 노력이 아닌, 동양상사지기인쇄 대표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인쇄업계가 모범이 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며 다시 한번 이 영광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인호 대표는 50년 이상 후가공에 종사해온 인쇄인으로 풀딩카톤을 주생산품으로 하며 환경친화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친환경 FSC 인증 획득, 휘발성 유기용매 미포함 잉크 및 대두 잉크 사용을 확대해 왔다. 또한 재료 특정, 개별 공정, 기술적 특성 등 풀딩카톤 분야 전 공정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축적을 높이 사 지난 2021년에는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현재는 중구청 인재육성장학회 이사 및 기부 봉사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인터팩 2026 참가사 등록 시작

2024년 5월 7일부터 13일까지 개최



세계 최대 포장산업전 ‘인터팩 2026’ 참가사 등록이 시작됐다. 전시회 일정은 2026년 5월 7일부터 13일이며, 참가사 등록 마감은 내년 2월 28일까지이다.

인터팩은 전 세계 포장인 17만 명이 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방문객의 60%가 비즈니스 결정권자이며, 해외 비중이 73%에 달해 진정한 의미의 국제 행사로 손꼽힌다. 지난 전시회는 팬데믹 여파에도 61개국 2,800개 포장 업체가 참가하고 15만 명이 방문했다.

올해 역시 포장 산업의 주요 8대 분야인 식품, 음료, 당과류, 제과/제빵, 의약품, 코스메틱, 비식품, 전자/기계 산업으로 전시홀이 구성된다. 생산 기계 및 장비, 포장재, 포장 공정, 라벨링, 물류/운송장비 등의 분야에서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정보는 라인메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터팩은 전 세계에서 참가사가 몰려드는 전시회로 부스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대표부 라인메세 담당자는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배정 희망사항이 있다면 신청서의 코멘트(Comments)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인터팩과 동시 개최되는 국제 포장부품전시회 ‘Components 2026(컴포넌츠)’도 참가사 신청을 받는다. 컴포넌츠 전시회에는 패키징 산업 선진화를 담당하는 자동화 솔루션과 구성품이 참가한다. 드라이브 기술, 제어, 센서, 산업용 이미지 처리, 자재 처리 기술, 산업용 소프트웨어 및 통신, 기계 부품/구성품, 주변 장비, 포장재

용 부품 등에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관련 문은 메세 뒤셀도르프 공식 한국대표부 라인메세로 하면 된다. (kyui@rmesse.co.kr, 070-4250-3727)

조합원사 변동

업체명	변동 전	변동 후	변동사항
(주)지오마케팅	김서령 강남구 도산대로68길 25(청담동)	정선경 송파구 총민로 52, 10층 에이1001호(문정동)	대표, 주소
(주)트윈에드컴	나현숙	김형수	대표
주식회사 두성	중구 퇴계로31길 7 (필동1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40, A동 203호 (삼송동)	주소

부고

- 글로벌로지스텍 김유석 대표의 빙부께서 3월 5일 별세했습니다.
- 방형식디자인 이승환 대표의 부친께서 3월 16일 별세했습니다.

조합원사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쇄저널은 조합원사와 소통과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업체홍보나 새소식, 탐방기사, 기고를 원하는 독자 여러분께서는 서울인쇄조합 사업홍보팀으로 연락주세요.

- Tel : 02-333-8631(내선 239)
- E-mail : cmyk1813@gmail.com

고정연장근로(OT) 이렇게 활용하세요

공정한 보상과 건강한 일터를 위한 근로문화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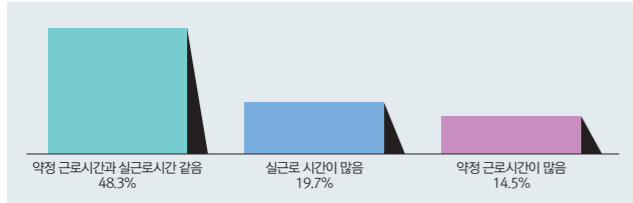
고정연장근로(Over Time/이하 OT)란?

근로자가 매월 일정 시간 시간외근로(고정OT)를 한다는 전제로 사업주가 고정OT 수당을 급여와 함께 정액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

● 현장에서 고정OT를 사용하는 이유

근로자	사업주
- 안정적 수입 확보 - 임금상승 효과	- 수요 예측 어려운 연장 근로시간 확보 - 안정적 비용 관리

● 고정OT시간 실근로시간 비교(근로자 응답)



자료 : 고용노동부, '23. 11월

유의사항

-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고정OT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

<예시>

근로계약서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자는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월 24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 기본급과 고정OT 수당 구분 & 고정OT 수당 산출 내역에 시간 명시
 - 근로계약서 등의 임금 구성 항목에 기본급과 고정OT 수당을 구분하고, 고정OT 수당 계산방법을 알 수 있도록 고정OT 시간을 기재

<월급제 예시>

항목	금액	산출내역
기본급	2,299,000원	11,000원×209시간
고정OT수당	396,000원	11,000원×24시간×150%
중식대	25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합계	3,045,000원	

※ 주의

- 기본급과 고정OT 수당을 구분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임금총액이 기본급으로 인정되고, 실제 발생한 시간 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미지급(임금체불)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 있음.
- 고정OT 시간 및 수당을 정할 때 주 52시간과 가산수당에 대한 법상 최저기준 준수(5인 미만 기업은 제외)

- 실근로시간이 고정OT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 수당 지급
 - 이번 달 고정OT 시간 미사용분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 *잘못된 고정OT 예시 첫 번째 참조

관련 법규

구분	내용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시간외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임금체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43조)

잘못된 고정OT 예시

A업체는 근로자와 월 24시간의 고정OT를 약정. 근로자는 지난달 12시간, 이번 달 26시간을 연장 근로함. A업체는 지난달 미사용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이유로 이번 달 초과근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 임금체불

B업체는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정OT제도를 실시. 하지만 출퇴근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음. 컴퓨터 사용 및 사내 인터넷 시스템* 접속 기록을 통해 고정OT시간을 초과한 근무 사실이 확인됨 → 임금체불 (연장근로 미지급 수당 7백만원 적발)

C업체는 근로자와 고정OT를 월 52시간으로 정하고,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근로 수당의 구분 없이 월 360만원 정액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

안내사항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면 잘못된 고정OT 사용을 예방할 수 있어요!
'21. 11.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등
- 근로자에 대한 정보, 임금총액, 임금지급일

교부방법

-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oel.go.kr/wageCalMain.do)

(자료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출퇴근기록관리,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경정청구(세금환급)

1.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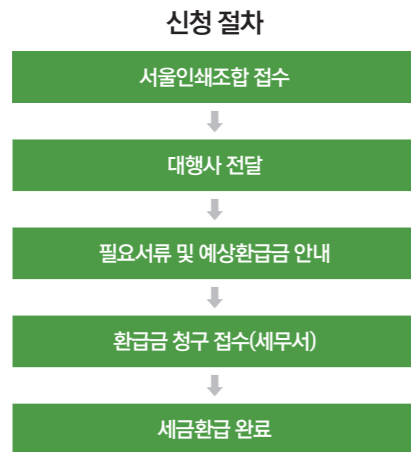
경정청구 신청자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경정청구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가 접수된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서울인쇄조합은 노무법인신승HR과 함께 경정청구 서비스로 적법하게 감면받을 항목을 분석하여 환급 가능한 세금을 찾아드립니다.



문의 및 동의서 회신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총무관리팀 유현숙 차장

Tel : 333-8631 (내선237) / Fax : 334-8731

E-mail : spic8631@naver.com

동의서 바로가기



동의서 QR

노무정비 서비스

(최신 노동법 반영)

1.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벌금, 과태료,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출근부가 필수 지침서류이므로 포괄역산임금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 공휴일 근무 시 기본수당 외에 휴일근무, 가산수당, 연장수당으로 1.5배~2.0배 추가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 휴일 대체 사용 합의를 작성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로 총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항목별 임금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핵심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노무사 무료상담 및 노무관리서비스

구분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일치 확인(위반 시 인당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임금명세서 정비	임금명세서 형식 확인(위반 시 인당 과태료 최대 500만원)
취업규칙 정비	5인 이상 사업자 필수 구비사항, 10인 이상 사업장 신고 필수사항(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법정의무교육 지원	5대 법정의무교육 무상지원(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서울인쇄조합은 노무법인신승HR과 노무사 무료상담 및 노무관리 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조합원사 인사노무관리 애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 노무법인신승HR

• 대표전화 : 1800-6676

• 담당사무장 : 010-9019-7266

※ 유선 문의 시 '서울인쇄조합 회원사'임을 알려주세요.

조합 가입이 한결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가입비 인하, 서류 간소화

그동안 조합에 가입하시려면 너무 많은 제출서류 때문에 망설이셨다고요?
이제 제출서류가 한결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중복되거나 번거로운 서류를 싹 빼서
이제는 6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가입비도 기존 1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조합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하세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개인보다는 단체가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

가입 대상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증 상의 인쇄업종 (업태 : 제조, 종목 : 인쇄)으로 등록 되어 있으면 모두 해당

가입 신청 및 제출서류

1. 조합가입신청서(소정양식)
2. 업체실태현황(소정양식)
3. 대표자 이력서(소정양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가입비 총액 (가입비+출자금+월회비)

- ① 가입비 : 500,000원
- ② 출자금 : 200,000원
- ③ 월회비 : 10,000원~150,000원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가입 신청 절차



문의 | 총무관리팀 ☎ 02-333-8631

서울인쇄센터 이용안내

4월에는 어떤게 있나?



인쇄 디자인 능력 교육

일러스트 인디자인
한컴 포토샵

모두 한 번에!

초급/중급 신청 가능(4/1-)
서울인쇄센터 홈페이지>소공인 지원사업>교육사업>디자인 능력 향상 교육

공동장비로 신제품 창안




인쇄업체 샘플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책자, 리플릿, 포스터 등등
우리 서울인쇄센터의 공동장비를 활용하여
신제품을 창안하여 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보자!

취업희망자에게는
취업용 포트폴리오 제작 기회
+
소공인에게는
업체 홍보 기회!



포켓 프린팅

일반시민 맞춤형 비상업용 인쇄를 제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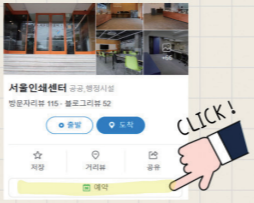
우리 아이가 그린 그림을
그림책으로!
나만의 달력
나만의 수첩을
제작해보자



예약 방법

네이버 예약을 통하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쇄교육이나 장비활용, 회의실 대관이 필요한 경우
일정에 맞춰 신청하여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 후 예약 확정을 해드립니다



서울인쇄센터 공식 웹사이트
예약하기(4월 1일 - 4월 19일)

☆ 예약 ☆ 문의 ☆ 문의

※서울인쇄센터는 인쇄사의 매출을 잠식시킬 수 있는
대량 인쇄는 지원해드리고 있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소재 인쇄인을 위한 지원센터



2024 인쇄 기술 교육 프로그램 안내

교육과정

인쇄 디자인

- 일러스트 + 포토샵 4.29(월) ~ 6.17(월)
- 인디자인 4.29(월) ~ 6.14(금)
- 인디자인(인쇄실무) 6.17(월) ~ 7.25(목)
- 한글편집 교육 5.20(월) ~ 7.10(수)

교육과정(기술)

인쇄기술교육

- 오프셋 인쇄장비 교육 7 ~ 8월 중 예정
- 디지털 인쇄장비 교육 7 ~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홈페이지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전자우편 제출
spsmc@naver.com
- 홈페이지 : <https://www.seoulprinting.com>
- 문 의 처 : 서울인쇄센터
070-4242-9362, 070-4242-9351

※ 오프셋, 디지털 인쇄장비 교육과정은 실습 장비업체의
운용상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원서접수(3주간)
2024. 4. 1.(월)
-
4. 19.(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장 입대 매매



서울 중심 중구청 바로 옆 남쪽
충무로 4가 334번지



재개발 신축 새 건물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5000평 중
지하 2층 계약면적 236평
인쇄업종



- ◆ 층고 5M
- ◆ 햇빛 들어옴/선큰sunken 시설
- ◆ 화물 EV 8ton 설치 운행
- ◆ 일반 승강기 3대 운행

문의 010.7510.6995 | 010.9111.7829



MAIN Biz

경영혁신명 중소기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조달청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창작디자인연구소



2019년

'아름다운 남세자상' 수상

컬러 본능

살아있는 색을 구현하다



보유인쇄기종

- RYOBI OFFSET 1020ST-5
- MITSUBISHI DAIMOND 3000Ls5color
- KOMORI LITHRONE LS426



KYUNGSUNG 경성문화사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여의도동 퍼스텍빌딩(B1F, 1F, 4F, 5F, 7F, 8F, 9F) T.02-786-2999

충무로 공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8, 1층(충무로3가, 용봉빌딩) T.02-2274-5944

일산 장항동 공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66 T.031-908-97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세종(편집·디자인실) 세종 특별자치시 어진동 3-113



K·print 2024

2024
8. 21 수
~ 24 토

KINTEX
제2전시장 7,8홀



Since 1978

KIPES

27th Korea International Printing Machinery and Equipment Show
제27회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

Klabel

Korea Label Show
한국레이블전시회

Kpack

Korea Packaging Show
한국패키징전시회

Kdigital print

Korea Digital Print & Solution Show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

Ktextile

Korea Textile Show
한국텍스타일전시회

Ksign&ad

Korea Sign & AD Show
한국사인·광고전시회

주최

한국이앤엑스
대한인쇄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 한국인쇄진흥재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 대한인쇄연구소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 한국인쇄학회

미디어후원



PRINTING TREND

프린팅코리아

THE 사인문화

www.kprint.kr



참가신청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kprint@kprint.kr